

S-OIL MAGAZINE
FEBRUARY VOL.387



신년 산행



가족 이야기



표지이야기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한 인사 시스템 및 경영 인프라 개선(Strategic HR and mgmt. infra upgrade for performance drive)을 통해 회사의 성공적인 미래를 눈앞의 현실로 바꾸어나가는 HR기획팀을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19~23쪽)

통권 제387호

발행일 2014년 2월 4일

발행처 에스-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공덕동 471)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04

주요소식

사랑의 떡국 나누기

신년 산행

고객 초청행사 '맘마미아'

YES팀 발대식

대졸 신입사원

단신



19

최강 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성과 창출 극대화 이룹니다
HR기획팀



24

소식 모아보기

임원과 직원의 소통 현장, 분해1·2·3부 바비큐 파티

최신 트렌드에서 성공 노하우 배웁니다

짜짜짜, 우리 사수가 장관상 받았어요!

2014년엔 우리 팀이 제일 잘 나가

26

햇살나눔

햇살나눔 캘린더
천연기념물지킴이 어린이 겨울 생태캠프
햇살나눔 단신



34

가족 이야기

퍼즐 같이 조화로운 가족이 되고 싶어요
대전지사 홍승덕 사우 가족



32

No.1 주유소

제1호 주유소의 역사와 명성 지켜가겠습니다
서울 화곡동 하이웨이주유소



40

걷고 싶은 길

천년역사와 자연생태 찾아 자분자분 거니는 '숨길'
전주 한옥마을 숨길



44

나의 롤모델

강한 내면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46

열린 서재

여러분은 이미 행복합니다 법륜 <인생수업>

48

마음 읽기

이유 없이 스마트폰 든다면 혹시 나도? <스마트폰 중독>

50

독자광장

한겨울 추위 녹이는

떡국 한그릇 사랑

사랑의 떡국 나누기



나눔 속에 느낀 큰 보람

햇살나눔의 따뜻한 사랑이 한그릇 떡국에 담겨 이웃의 시린 마음을 녹였다. 우리회사는 1월 29일 광야교회 노숙자 무료급식 센터(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에서 세밀 나눔으로 '사랑의 떡국 나누기' 활동을 펼쳤다. 2007년 이래 8년째 지속 해온 이 나눔활동에는 나세르 알 마하서 CEO를 비롯해 햇살나눔봉사단·퇴직 임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현장에는 여생을 홀로 지내는 노인, 생계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경제·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등 우리 이웃 약 500명이 찾아와 뜨거운 떡국을 두고 마주앉았다.

마하서 CEO는 떡국 배식에 이어 쪽방촌 가정을 방문해 설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봉사단이 아침부터 분주히 포장한 선물 꾸러미에는 떡국떡, 쇠고기, 굴, 라면 등 식료품이 포함됐다. 마하서 CEO는 "울해도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음식인 떡국을 이웃과 나누며 설 준비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의 정성으로 모두 외롭지 않은 명절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설을 앞두고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떡국을 대접하는 행사가 열렸다. 떡국과 함께 정성스레 마련한 선물을 통해 햇살나눔의 온정도 건넸다.

글 송경란

사진 전부순

자료제공 신영철(운영지원팀)·심규익(대외업무팀)

지역사회 비추는 햇살나눔의 온정

앞서 1월 27일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에서 공장 임원이 떡국 배식에 나섰다. 박봉수 수석부사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은 울산지역 어르신 300여 명에게 떡국을 대접했다. 이와 함께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설 선물로 내

복 등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박봉수 수석부사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기 위해 공장 임원들이 합심해 이 자리를 준비했다”며 우리 봉사단을 향해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지역 이웃에게 감사하며 봉사활동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



▲ 떡국나눔을 함께한 영등포 쪽방촌 광야교회에 소형 승합차를 기증해 주민들의 통원치료, 식료품 제공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도전과 희망 약속한

정겨운 산행

신년 산행



진취적인 푸른 말의 기운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1월 11일 나세르 알 마하서 CEO를 비롯한 임원과 본사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 신입사원 등 임직원 250여 명은 서울 청계산 이수봉에 올라 심호흡을 함께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마하서 CEO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올해는 회사 역사상 최대 시설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푸른 말’의 기운을 받아 우리 임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힘을 불어넣었다. 또한 신입사원들에게 “어려운 눈길을 헤치고 마침내 정상에 선 오늘의 도전정신을 마음 깊이 새겨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하서 CEO는 “신규 프로젝트는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로드맵 중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고 “우리의 비전인 ‘가장 수익성 있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도 약하는 데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산행에 동참한 신입사원들은 마하서 CEO와

‘하이 파이브’를 하며 회사의 일원으로 맡은 일을 당차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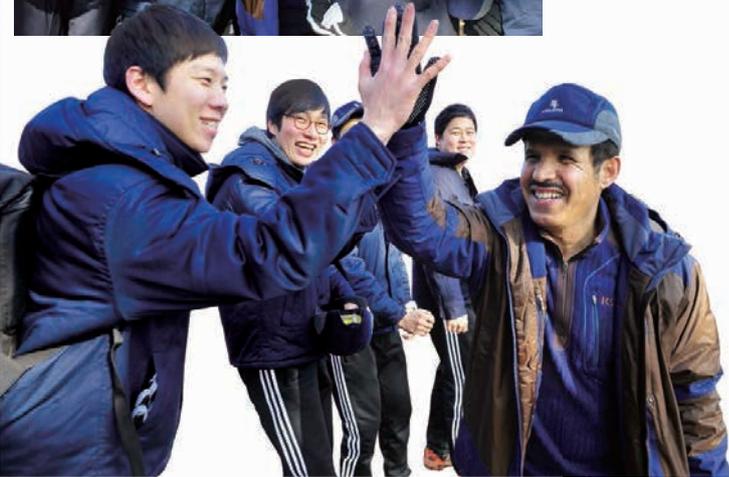
희망의 2014년, 목표달성 다짐한다

1월 4일 충청지역본부와 소매부문 임직원들이 새해를 맞아 태화산(충남 공주시 사곡면)에 올랐다. 태화산은 전란을 피할 수 있는 명당 사찰로 옛 문헌에 기록된 ‘마곡사(麻谷寺)’를 품고 있다. 특히 봄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곳에서 충청 지역본부 임직원들은 힘차게 정상을 밟고 올해 건승을 외치며 서로를 응원했다.

이번 산행을 통해 임직원들은 새해의 다짐을 굳건히 하면서 나태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 산행 중 만났던 고즈넉한 겨울산의 그림자를 보면서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성취했는지 되새겨보며 앞으로의 목표를 새로 세워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내년 산행에서는 목표달성의 뿌듯한 마음으로 올해보다 더욱 자신 있게 미소 지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소리 높여 ‘파이팅!’을 외쳤다.

우리회사가 본사 및 지역본부 단위로 등산 행사를 열고 희망찬 새해 각오를 다졌다. 임직원들은 동료와 함께 인근의 명산을 오르며 적극적인 도전의 자세로 한 해를 보낼 것을 다짐했다.

사진 전부순
자료제공 광수지(홍보팀) · 신기섭(충청지역본부) · 채만기(전라지역본부)



밀고 끌어 정상에 우뚝 서는 한 해가 되자

새해 각오를 다지고 새 도전을 향한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전라지역본부 산행 모임인 전라산악회 모든 회원들이 무등산(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올랐다. 이번 산행에는 윤종호·김인환·이장혁(소매관리팀) 사수가 함께 동참했다.

희망찬 내일을 암시하듯 산행 당일 날씨가 맑았고 참가자 전원은 무등산 자락 사찰인 '원효사(元曉寺)'에 집결해 구호를 외치고 산에 올랐다. 한 겨울이 무색할 만큼 따스한 날씨에 한껏 고무된 직원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료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산길을 걸었다. 산 중턱에서 무등산 정상까지 이르는 산길은 매우 거칠고 가파른 길의 연속이었지만, 참가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리려면서 밀어주고 끌어당기며 무사히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다. 광주시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무등산 정상에서 참가자들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노라고 다짐했다. 🌄



멋진 공연으로

특별한 감동 전합니다

고객 초청행사 '맘마미아'



우리회사가 영국 뮤지컬 <맘마미아> 오리지널 팀의 내한공연에 맞춰 '에스-오일과 함께하는 맘마미아(Mamma Mia! with S-OIL)' 행사를 마련했다. 1월 17일 블루스퀘어(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는 문화공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반해 고가의 티켓 비용으로 공연장 나들이를 망설이는 보너스카드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고객들은 우리회사가 티켓 정가의 50% 비용을 부담하는 가운데 절반 가격에 공연을 관람하는 행운을 누렸다. 보너스카드 고객 대상으로 판매된 특가 티켓은 예매 2주 만에 전석이 매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객석에는 주유소·충전소 대표, 협력업체 관계자 등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VIP 초청 고객들이 함께 자리해 문화축제를 즐겼다. 이 자리에는 나세르 알 마하서 CEO가 참석해 고객을 환대하며 우리회사와 함께 뜻깊은 추억을 간직 하길 기원했다. 한편 고객들은 공연 전 제공된 커피와 쿠키로 여유를 즐기고 포토존에서 구도일 인형과 함께 사진 촬영에 나섰다. 또한 경품 추첨을 비롯한 풍성한 부대 이벤트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흥을 돋웠다.

뮤지컬 <맘마미아>는 2004년 우리나라 초연 이후 사상 최단기간에 1천회 공연을 돌파한 국내에서 가장 사랑 받는 작품이다. 한국공연 10주년을 기념해 오리지널 팀의 첫 내한무대로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일찍부터 뮤지컬 팬들의 큰 기대를 모아왔다.

우리회사는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고객의 관심에 발맞춰 다양한 문화행사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우리회사는 고객과 함께 뮤지컬 <맘마미아> 내한공연을 관람하는 행사를 가졌다. 고객들은 수준 높은 공연에 열정적으로 호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우리회사가 마련한 풍성한 이벤트에도 즐겁게 동참했다.

글 김수경(고객개발마케팅팀)
사진 전부순

서비스 품질로 다시 찾는

주유소 만듭니다

YES팀 발대식



주유소 서비스 교육팀인 'YES팀'이 올해 발대식을 갖고 운영 강화에 나섰다. 방양정 상무를 비롯한 본사 직원과 YES팀 관계자 등 22명은 1월 27일 경일주유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발대식을 열고 YES팀의 새 출발을 알렸다. YES팀은 계열주유소 대상 교육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판촉홍보를 지원해 주유소 운영 활성화를 이끄는 교육팀이다. 서비스 이론교육과 시범교육을 통해 우리 계열주유소만의 표준화한 서비스를 확산하고 주유소 직원에게 모범적인 서비스 체험기회를 제공해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주유소를 만드는 데 활동목표가 있다. 또한 고정고객 유치와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마케팅 정책 수립을 위해 주유소 현장의 판촉과 홍보에 관해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올해는 YES팀과 더불어 'YES Plus팀'이 함께 가동된다. YES Plus팀은 주유소 근무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구성됐다. 코칭 기술과 전문상담 실력을 갖춘 고객만족 분야 강사 출신의 팀원들이 주유원 관리와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활동한다. 주유소 대표자(운영인)를 대상으로 인력관리 노하우를 전파해 주유원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주유소 현장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우리 계열주유소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 운영 활성화를 이끄는 'YES팀'이 신년 발대식을 가졌다. 서비스에 관한 이론교육과 시범교육을 실시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이 다시 찾는 주유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YES Plus팀'도 가동된다.

글 박지영(네트워크강화팀)
사진 전부순





회사발전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2014 대졸 신입사원

우리회사의 새로운 초석이 될 대졸 신입사원이 본사 집합교육을 마쳤다.
12월 23일 입소해 4주 동안 체계적으로 짜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80명의 새내기들은 맡은 바 책임 있게,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일할 것을 다짐했다.





초심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것

우리회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2014년 신입사원 80명이 4주간의 본사 합숙교육을 마쳤다. 각 부문 임직원들은 수시로 동양인재개발원을 찾아 특강 및 대화를 통해 신입사원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격려했다.

박봉수 수석부사장은 특강에서 “우리회사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고맙고 어려운 관문을 뚫고 입사한 것에 대해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다. “우리회사는 올해 신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더욱 견실한 회사로 도약할 것이다. 이에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지식, 자기계발, 외국어 등 능력개발에 힘써야 한다. 앞으로 현업에서 선배들과 소통하고 말은 바 업무를 소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우리회사는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초우량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을 투자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성공의 지름길

1주차 교육과정에서 신입사원들은 레크리에이션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회사의 여러 제도 및 체계를 익히는 데 힘썼다. 2주차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배경지식과 공정 과정을 배웠으며, 3주차에서는 현장 실습을 중심으로 각 부문 업무를 파악했다. 4주차에서는 탁구단 방문 및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가졌다.

선배 사우들은 “여러분들의 첫 직장으로 우리회사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입사환영의 말을 전하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특히 ▲철저한 시간관리 ▲정직성 ▲남의 험담을 하지 않기 ▲의타심을 배제하기 ▲일에 대한 열정 ▲상대방 배려 ▲끊임없는 자기개발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칙을 가지고 생활하면 여러분들이 꿈꾸던 것들이 현실로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 대면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쓰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탁했다. 이밖에도 인생철학 및 가치관,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새로이 입사한 80명의
대졸 신입사원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회사에 대한 이해와
직장생활 노하우 등
소중한 지혜와 지식을 얻었다
”



우리가 바로 최강의 새내기 80인이다!

우리회사의 미래를 이끌 신입사원들이 조별로 별칭을 정하고 포즈를 취했다.
단합과 협동을 통해 만든 각각각색의 모습들에서 활력과 재기가 넘친다.



넘버원

무엇이든 맡겨라!

앞장서서 술선수범하는 우리가 넘버원!

- ① 박해진 ② 김혜수 ③ 강호범 ④ 박상우
- ⑤ 장성제 ⑥ 윤제필 ⑦ 박동민 ⑧ 이용석
- ⑨ 우형진 ⑩ 이민형

지니어스

번뜩이는 아이디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적인 감각!

- ① 김지원 ② 김진형 ③ 로철권 ④ 김동엽
- ⑤ 최명원 ⑥ 조준형 ⑦ 지용희 ⑧ 정영락
- ⑨ 석윤수 ⑩ 김건우





영웅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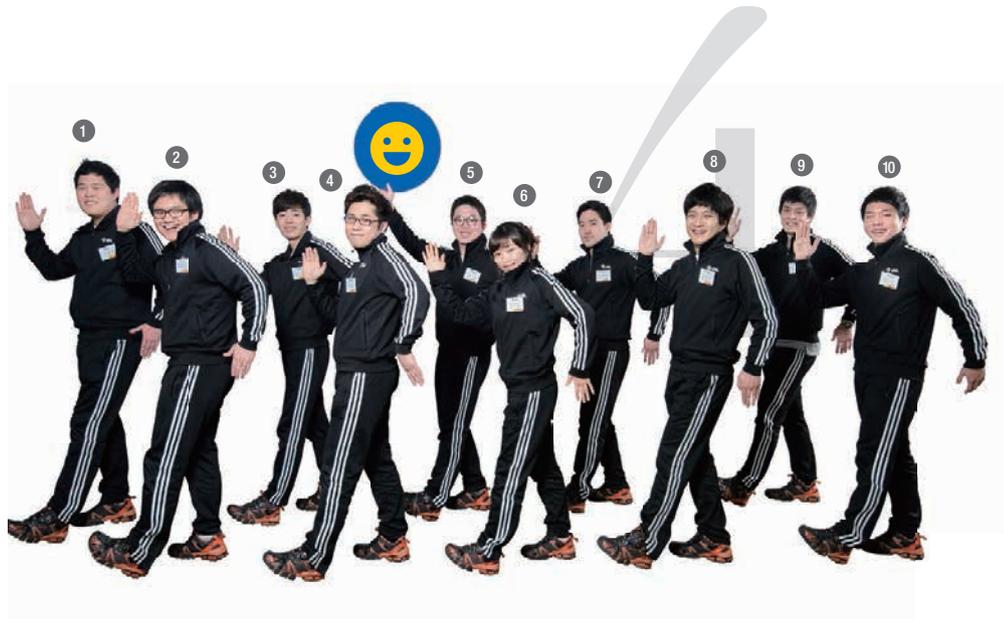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라. **머지않아 전설이 된다!**

① 김원경 ② 이진주 ③ 최수영 ④ 성정현 ⑤ 김신형 ⑥ 홍보인 ⑦ 김태영 ⑧ 이윤백 ⑨ 이용우 ⑩ 박준호

일심동체

뭉치면 산다
얼굴 표정만 봐도 척척 아는
우리는 일심동체!

① 서동하 ② 전승욱
③ 정성훈 ④ 임성훈
⑤ 최기원 ⑥ 김건희
⑦ 박건욱 ⑧ 홍윤기
⑨ 양동조 ⑩ 김관희



반전매력

선남선녀
우리 매력에 빠지면 누구도
나를 수 없다!

① 김경호 ② 김경민
③ 배진만 ④ 한아름
⑤ 박세훈 ⑥ 진명진
⑦ 한승헌 ⑧ 안국문
⑨ 김석일 ⑩ 김재현

무한오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열정
오늘도 한가득!

- ① 김영진 ② 박정우 ③ 김동휘 ④ 김승수
- ⑤ 허윤희 ⑥ 이태훈 ⑦ 이찬희 ⑧ 이민구
- ⑨ 이만제 ⑩ 김성준



비전달성

우리아말로 일당백!
천군만마가 필요 없으리라!

- ① 이세훈 ② 이지훈 ③ 백동민 ④ 박창은
- ⑤ 주혜연 ⑥ 이상현 ⑦ 김민철 ⑧ 최상원
- ⑨ 백재우 ⑩ 김현호

최강도전

도전정신으로 뭉친 우리
앞을 막을 자 없다!

- ① 김태현 ② 배지현 ③ 민춘기
- ④ 추영준 ⑤ 남경목 ⑥ 이희성
- ⑦ 이정현 ⑧ 남상덕 ⑨ 이석범
- ⑩ 유진욱



회사의 미래 맡겨주세요!

입사하게 된 동기는

취업 준비를 하던 중에 친구가 비전 있는 회사라며 추천해줘서 알아 보던 중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 원서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 반 기대 반이었는데 들어와 보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좋은 회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한 인상은

큰 회사여서 놀랐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연수 선물로 태블릿을 지급해주는 통 큰 회사라는 것도 놀랐고요. 신입사원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에 100% 부응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오와 포부는

긍정의 마인드와 열정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장래에 회사를 이끄는 한 축이 되어 최소한 30년 이상, 임원이 되는 그날까지 '견마지심(犬馬之心)'의 자세와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꼭 지켜봐주세요.



박준호

“열정과
충성으로
회사의 미래를
담당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입사하게 된 동기는

어려서부터 화학·물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적성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정유사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正道(正道)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동종 분야 관련 세미나도 다녀보면서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을 느꼈고, 지원서를 넣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전후로 느낀 점은

입사 전에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튼튼한 회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보니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배들이 모두 열정적이라는 점, 가족친화적인 회사라는 점을 알게 됐어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에 적응하는 비결이 있다면

기초부터 다지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및 동료 사우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견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웃고 인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허윤희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새내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S-OIL NEWS



신입사원 대상 CEO 특강

나세르 알 마하서 CEO가 대졸 신입사원 80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지난 1월 22일 실험연구소 강당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마하서 CEO는 “우리 회사는 정유·유탄·석유화학 산업을 선도하는 가장 수익성 있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 거듭나려 한다”고 밝히고 “이 시점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앞으로 회사의 귀중한 자산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어 신입사원에게 당부할 점으로 “첫째, 포부를 갖고 자기개발에 매진할 것, 둘째, 창의성과 도전의식을 갖고 실천할 것, 셋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많은 경험을 쌓고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마하서 CEO는 사우디 아람코 정유공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할 당시 경험담을 전하는 한편, 가족의 중요성과 한국문화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표해 신입사원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와우 프로그램 경진대회

판매지사 영업사원이 참여하는 와우(WoW)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1월 2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내 영업본부에는 판매 위주에 머물러 있던 영업사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유소 컨설팅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지난 2010년 와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 지사 영업사원 대상의 교육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직원 1명이 1개 주유소에 대해 와우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하고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본부별 와우 프로그램 성과우수 주유소로 선정된 지사 및 직원들은 신동열 부사

장과 방양정 상무를 비롯해 각 지역본부장과 영업부문 팀리더, 우수지사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례발표에 나섰다. 발표자들은 내수시장 수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장분석에 기반한 판매 확대전략과 주유소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빙상 국가대표 포상 지원 약속

우리회사가 소치 동계 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빙상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포상금 지원을 약속했다. 나세르 알 마하서 CEO는 1월 27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김재열 회장에게 이 같은 지원 계획을 전하고, 동계 대회가 끝난 뒤 포상금 전달식을 열기로 했다. 우리회사는 쇼트트랙·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소치 대회 입상 성적에 기준해 금메달 2천만 원(단체전 선수 각 1천만 원), 은메달 1천만 원(500만 원), 동메달 500만 원(300만 원)의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마하서 CEO는 동계 스포츠의 대표적인 종목인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의 뜻을 표하며 “엄청난 노력과 열정으로 세계 정상의 실력을 갖추고 국제무대에서 온 국민을 열광시킨 빙상 영웅들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비부문 1분기 안전캠페인

공장 분기별 안전캠페인이 각 부문 주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비부문이 올해 1분기 캠페인을 주관하며 안전강화 활동에 나섰다. 정비부문은 안전캠페인 구호로 ‘사내 차량 속도 준수해 안전사고 예방하자’로 정하고 공장 내 차량 시속 20km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2012년 1~6월 산업재해 유형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4만1천106건 가운데 교통사고가 1천865건으로 약 5%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총 675명 가운데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는 17%에 이른다. 이에 정비부문은 산업 현장의 교통사고가 치사확률 높은 위험한 산업재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장 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캠페인의 목표를 두었다. 차량 및 스쿠터 안전사고 예방 10계명을 정해 적극 홍보에 나서는 한편, 점심시간 식당 앞과 퇴근시간 구분관, 정문 경비동 경사로, SEP 고가도로 초입의 경사로 등 차량속도 집중 준수 구간을 정해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를 높였다. 이외에도 정비부문은 출퇴근 시간에 정문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정보자료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4 브랜드 어워드’ 결선 진출작품 선정

대학생 대상의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인 ‘브랜드 어워즈’가 작품 접수를 마감하고 결선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아이디어를 찾아서’라는 콘셉트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작품을 공모한 이번 대회에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보너스카드 △모바일 앱 △환경 캠페인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392점 작품이 출품됐다. 그중 1차로 선별된 우수작품 62점이 예선심사를 거쳤으며, 이로써 10개 팀이 2월 19일 열리는 결선 프레젠테이션에서 맞붙는다. 3월 초 예정된 시상식에서 대상 1팀에게 400만 원, 최우수상 3팀에게 각 200만 원, 우수상 5팀에 각 100만 원, 특별상 150만 원 등 총 1천7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가 입사 지원을 할 경우 우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임원동정

1.7 이창재 부사장(관리지원본부) 빙모상

비상근고문 위촉

1.18 배상호(비상근고문)

인사동정

팀리더·부장(대행)/파트리더 임명

1.20 이계훈(전문부장,세무팀)→세무팀리더 송동수(2급,관리회계팀 예산관리파트리더)→리스크관리팀리더(대행) 정연태(2급,관리회계팀)→관리회계팀 예산관리파트리더

2.1 박용주(2급,윤활생산부 윤활유1과장)→윤활생산부장(대행)

보직변경

1.20 이동은(1급,리스크관리팀리더)→프로젝트금융팀리더 김홍석(1급,세무팀리더)→무역세무팀리더 이승호(2급,자금계획팀)→프로젝트금융팀 이용래(전문차장,자금운영팀)→무역세무팀

2.1 노근식(1급,윤활생산부)→정유유회생산공장장 보좌역 서상원(4급,분해공정부 HYC/LUBE 공정과)→윤활생산부 윤활

유1과장(대행) 전창현(4급,세무팀) 문보림(5급,회계팀)→프로젝트금융팀 황중연(5급,회계팀) 윤익상(5급,신용관리팀)→무역세무팀 송이현(5급,회계팀)→세무팀 최홍규(2급,구매관리팀)→구매팀 박만수(5급,구매팀)→구매관리팀

1.10 류경식(3급,직영주유소관리팀)→대리점영업팀

2.4 박정규(4급,Aromatics생산1부 PX생산1과 선임계장)→Aromatics생산1부 Safety Engineer 심철홍(4급,Aromatics생산1부 PX생산1과 교대계장)→Aromatics생산1부 PX생산1과 선임계장 김정태(4급,Aromatics생산1부 PX생산1과)→Aromatics생산1부 PX생산1과 교대계장 임해윤(운전직,Aromatics생산2부 Aromatics생산2과)→Aromatics생산2부 PX생산2과

정년퇴직

1.31 심우용(4급,Aromatics생산1부 Aromatics생산1과)

퇴직

1.31 황경일(4급,분해공정부 RFCC공정과)

결혼

1.11 박세홍(정유1과)

1.12 김윤호(환경운영과)

1.18 고준(정유2과)

1.19 김정환(Aromatics동력과) 김효민(장치과)

1.25 소상윤(LPG팀)

이정훈(Aromatics생산2과)

2.9 박민규(수소1과)

2.12 김지윤(예방정비2과)

김현제(동력1과)

부음

1.4 강철중(해상출하과) 모친 유재식(기술교육팀) 부친

1.5 우정민(보안과) 빙부

1.9 김준일(석유화학운영팀) 조모

1.11 변규석(경리과) 빙부

1.12 지용재(장치과) 빙부

1.13 강진국(정유2과) 빙부

1.15 이홍석(정유1과) 빙모

1.17 김규훈(군산저유소) 모친

1.19 박홍양(분해2과) 빙부

1.24 정하영(경영기획팀) 조모

1.25 백준기(제품운영1과) 부친

9 Corporate Initiatives

- High margin portfolio through RUC and olefin investment
- Capacity expansion through overseas partnership
- On-going business innovation within core and beyond
- Brand market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
- Overseas stable customer base expansion via partnership
- Global standard in SHE management
- 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y

• Strategic HR and mgmt. infra **upgrade** for performance drive

- Stakeholder communication enhancement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한
인사 시스템 및 경영 인프라 개선



뜨거운 열정과 굳은 포부를 품고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Strategic HR and mgmt. infra upgrade for performance drive(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한 인사 시스템 및 경영 인프라 개선)'를 수행하며 회사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HR기획팀'을 소개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성과 창출 극대화 이룹니다

HR기획팀



최근 기업경영 트렌드로 사람을 통한 가치창출이 대두되면서 인적자원을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개발에 사활을 거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회사의 인사제도 수립/개선을 통해 전사전략과제를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HR기획팀의 다양한 노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
 인사 시스템의 핵심은
 재능과 에너지를 발산시켜
 역량강화를 돕고,
 이를 기업성과 도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



기업들의 인사 전략은 직원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시켜 기업성과 도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다. 창조경영으로 상징되는 현 시대에 사람의 능력이 보다 중요해진 경향을 짚은 하대일 팀리더는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품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임직원 스스로 업무에 몰입하고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 팀리더는 “우리회사는 자기개발을 도와주는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인본주의 경영철학이 뿌리 깊게 자리해있다”고 말한다.

“조직과 잘 융화되도록 돕고 맡은 일에서 창의성과 진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HR기획팀의 업무입니다.”

HR기획팀은 회사의 전반적인 인사제도를 수립하고, 기업환경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인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수립·관리하면서 효율적인 인재 관리와 역량 강화를 꾀하는 한편, 투명한 평가제도 및 보상제도를 수립·개선하는 일도 수행한다.

“회사의 장단기 인력운용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인재 선발 계획과 역량 향상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를 이끌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막중한 일이지요.”

이를 위해 인사팀과 인력개발팀, 노사협력팀과 조직문화팀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
HR기획팀은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하나를 완성해가고 있다. 인적자원(Human Capital)의 아이디어가 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느 회사보다 모범적인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갈 계획이다.

신규 프로젝트 지원에 역량 집중할 것

올해 들어 HR기획팀의 발걸음이 부쩍 바빠졌다. 회사의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한 인사 시스템 및 경영 인프라 개선(Strategic HR and mgmt. infra upgrade for performance drive)’을 실천하는 부서로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인력 분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부터 2018년까지 인력 확보 방안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진행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인력 계획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인재를 얼마만큼 확보할지, 어떻게 적재적소에 투입할지, 또 인재들이 역량개발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의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지 고민합니다.”

HR기획팀이 생각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성공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건은 신규 프로젝트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때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궁극

적으로 역량 향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창의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회사와 직원 간 신뢰 구축이다. 우리회사는 이 때문에 신뢰 확보를 위해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돈하고 있다.

신뢰할 만한 인사제도 구축이 최우선

기업을 끌고 나가는 것도, 기업의 비즈니스를 완성시키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따라서 직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기업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HR기획팀의 생각이다.

“옛날에는 사람을 비용으로 판단해 줄여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요즘 기업 구성원은 중요 자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인사 시스템, 자기개발을 도와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경영진의 관심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HR기획팀은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인사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직원의 만족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직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진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수 기업들의 우수 제도 및 사례를 연구하고 개선 작업을 통해 선진적인 인사제도 구축에 최



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이들에게.
 “일할 맛 나는 회사,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인사제도를 올곧게 만들어 우리 동료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MINI INTERVIEW



HR기획팀의 강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조직입니다. 변화에 대한 감각이 탁월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생각을 할 줄 아는 직원들이 많지요. 이런 직원들이 선배 직원과 함께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서경섭 부장 젊은 사우들 만큼이나 열린 생각을 가진 분으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대성 사우·전상훈 사우 각각 딸과 아들이 있는데, 서로 장래 사돈임을 명심하고 돈독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손익홍 사우 올해 꼭 결혼소식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윤원경 사우 장가도 갔으니 올해는 2세 계획 가지면 좋겠네요.
이다희 사우 귀여운 아기 잘 낳고 지금처럼 열심히 근무하기를 바랍니다.

HR 기획팀 사우들을 소개합니다



임원과 직원의 소통 현장, 분해1·2·3부 바비큐 파티

안익성
-
수소3과



지난 1월 9일 분해1·2·3부 직원들과 임원이 함께하는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임원과 생산 부서 사이에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를 열고자 이번 파티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생산본부장 인 이용희 부사장을 비롯해 분해1·2·3부 B조 근무자, 주간조 계장과 세이프티 엔지니어(Safety Engineer), 부·과장, 담당 상무, 노조위원장, 사무국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박봉수 수석부사장은 출장으로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모임은 전체 공장 차원에서 추진해나가기로 한 바비큐 파티 가운데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이 뜻깊은 파티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목은 때를 씻어내고 희망의 꽃씨를 심는 마음으로 회사의 미래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원과 생산부서 직원들이 마주하는 이 행사는 앞으로 전 공장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마주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거듭할수록 회사의 성공적인 청사진이 현실로 또렷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최신 트렌드에서 성공 노하우 배웁니다

박지수
-
멤버십마케팅팀



고객지원부문이 마케팅 성공전략에 관한 통찰력을 강화하고 소통활성화를 꾀하는 '맛'케팅을 시행해온 가운데, 그 일환으로 시중 커피 브랜드 제품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본사 11층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7개·국외 1개를 포함한 총 8개 커피 브랜드 제품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은 시음 뒤 선호도에 따라 최대 4개까지 맛있는 제품에 표를 던졌습니다. 투표 결과는 해당 브랜드의 마케팅 활동과 견주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데 사용됐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지원부문은 맛있고 인기 있는 음식점, 일명 '맛집'을 탐방하며 성공적인 마케팅 비결을 짚어보는 등 '맛'케팅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짜짜짜,
우리 사우가
장관상 받았어요!

권창환
-
판매계획/분석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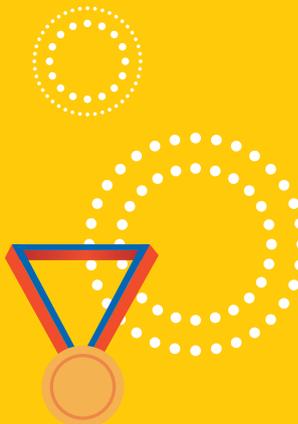


우리 팀 조용민 사우가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거머쥐었습니다. 조 사우는 정부가 매달 정유업계 유류판매 동향을 파악하며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정부 통계자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번 표창으로 조 사우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업무의욕이 한층 고취되리라 생각합니다.



2014년엔
우리 팀이
제일 잘 나가!

김반야
-
멤버십마케팅팀



멤버십마케팅팀이 아주 특별한 송년 겸 신년 모임을 치렀습니다. 이음하여 '멤버십 어워드'입니다. 한 해 동안 저마다 애쓰셨다고, 덕분에 지난 1년이 행복했다고 서로 다독이며 상을 수여한 것입니다.

제멋대로 만든 상은 박장대소할 타이틀 일색입니다. 팀의 '패셔니스타' 김재만 사우가 탄 상은 '신상'입니다. 김성은 사우는 상품권 판매로 활약해 '거상'을 받았고, 김태원 사우는 금연 시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아 '금단현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현세에 인기가 없다'고 애달파 하는 박지수 사우에게는 다음 생애 인기를 염원하며 '다음세상'을 수여한 데 이어, 잦은 야근 탓에 책상과 제일 오래 마주하는 김영진 사우는 '책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밖에도 '하극상' '빵상' '치명상' 등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상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비록 조출한 팀 모임을 통해 나는 상이지만 수상의 기쁨을 동력 삼아 빛나는 성과를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01

JANUARY

새해 새 희망

‘햇살나눔’이 응원합니다

2014년 1월 전사 각 단위 햇살나눔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는 새해 벽두부터 햇살나눔봉사단은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반갑게 인사하며 머물다 간 곳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함박웃음이 터졌다.

2014. 01.

08



울산지사

봉사단은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중구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을 배달했다.



12

가족사진촬영봉사팀

담도폐쇄환아 가족을 초청한 봉사팀은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패밀리룩과 구도일 인형을 전달했다.

21



분해1부

봉사단은 경로당을 찾아 시설 보수와 청소 작업을 돕는 등 환경개선 작업을 펼쳤다.



윤활생산부

동구청소년문화의집을 찾은 봉사단은 방과후 아카데미로 청소년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7



18

품질관리부 · 품질보증팀

봉사단은 울산노인의집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분해3부

봉사단은 해밀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어린이들과 동행해 눈썰매 놀이 체험장을 다녀왔다.

아이들 마음 깊숙이 자연사랑을 가르칩니다

천연기념물지킴이 어린이 겨울 생태캠프



서울에서 출발해 2시간여 버스를 타고 이동한 아이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강원도 철원에 있는 야생조수류보호소였다. 겨울이 되면 철원을 찾아와 월동하는 두루미 이야기와 다친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표정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특히 사고로 다친 동물들의 모습이 자료화면에 나올 때는 안타까운 탄성이 터져 나왔다.

생태교육에 이어 아이들은 두루미 탐사를 떠났다. 강의를 열심히 들은 아이들은 버스 창밖에 두루미가 어떤 종류인지 재빨리 맞추기도 하고, 두루미가 등장할 때마다 "우와 저기 있어요!"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모두가 두루미를 관찰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친구도 있었다.



매섭게 추웠던 1월 중순 ‘에쓰-오일과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어린이 겨울 생태캠프’가 열렸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참가한 어린이들은 두루미 관찰활동과 산천어 체험 활동 등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비무장지대 면적이 축소되고 평야에 시설이 들어차 두루미들의 먹이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먹이주기 체험 순서에 너도나도 먹이를 더 주겠다고 나섰다. 먹이주기 체험을 위해 준비한 알곡을 더 달라 외치기도 했고 “이 모이를 먹고 두루미들이 힘내서 멀리멀리 잘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

첫날 저녁에는 천연기념물에 관한 퀴즈 대회가 있었고, 뒤이어 서로의 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2학년의 한 아이는 ‘물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특별한 꿈을 말했다. “물이 더러우면 동물들이 죽고, 사람도 살 수가 없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물 과학자가 되려고요”라며 자신의 꿈을 또박또박 이야기했다.

둘째 날에는 산천어 축제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무릎 꿇고 얼음 구멍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얼음 밑에 산천어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아이도 있고, 산천어를 가득 잡은 아저씨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구경하는가 하면 월척을 낚은 모습에 박수 치며 즐기기도 했다. 산천어를 직접 낚시한 아이들은 구이터에서 자신이 잡은 산천어가 불에 익는 것을 지켜보며 노릇노릇 변해가는 생선 모습에 “우와~!” 감탄하면서 신이 난 듯 재잘거렸다. 아이들이 잡은 산천어 여섯 마리는 점심식사 때 모두 함께 나눠먹었다. 식사 뒤에는 산천어 축제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썰매장에서 신나게 눈썰매를 탔다. 아이들은 타고타고 또 타도 지치질 않았다.

겨울방학 내내 센터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아이들에게 어린이 겨울 생태캠프는 멋진 추억이 됐다.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를 시청하며 가족과 떠나는 여행을 내심 부러워했던 아이들에게 이번 여행은 그러한 동심을 조금은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와 함께 아이들은 평소 접할 기회가 없는 천연기념물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하면서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



* 기아대책(Korea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은 1971년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기구다. 198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원조 비정부기구로 설립된 뒤 북한을 비롯한 국내외 빈곤 현장에 기아봉사단을 보내 구호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다.

세상 밝히는 나눔 일꾼이 되겠습니다

햇살나눔 활동 이모저모

햇살나눔봉사단이 도움이 필요한 곳곳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기부와 후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햇살나눔의 이야기를 모았다.



이웃의 아늑한 보금자리 만들기

글 정일(고객서비스팀)

자료제공 박대식(종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본사 정기봉사팀인 집수리봉사팀이 의욕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집수리봉사팀은 종로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인근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햇살나눔 대학생 홍보대사도 동참해 이웃 가정을 돌봤습니다.

작년 말 집수리를 해드린 할아버지는 6.25전쟁 때 군에 입대했는데 안타깝게도 휴전 직전에 팔과 다리에 총상을 입은 분이셨습니다. 최근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고 뇌손상까지 입어 많이 힘들어 하시던 차에 집수리봉사팀이 나섰습니다.

간단한 생활용품들을 밖에 옮겨두고 장롱을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도배를 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면은 스티로폼으로 방습작업을 하고, 부엌에는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에는 가구들을 모두 닦고, 처음 사진을 찍어둔 상태 그대로 제자리에 옮겼습니다.

집수리봉사는 생각보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보람은 비할 바 없이 큼니다. 집수리봉사팀은 이웃 가정을 한층 더 말끔히 고쳐드리겠다는 일념으로 도배 전문교육도 받았습니다. 의미 있는 땀방울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집수리봉사에 정말 많은 직원들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집수리봉사팀 참가문의 jc3612@s-oil.com ☎5524



쌀이는 쌀만큼 사랑도 차곡차곡

글 이수연(대외업무팀)

우리회사가 울산지역 이웃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백미 1천972포(20kg/포)을 기부했다. 전달식은 1월 23일 울산시장실에서 류경표부시장과 김용연 상무를 비롯해 박맹우 울산시장, 김상만 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부한 쌀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을 통해 지역 내 보훈가정과 저소득가정 1천972세대에 전달됐다. 우리회사는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설과 5월, 추석에 어려운 이웃과 보훈단체 등에 쌀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총 51억6천200만 원을 기부했다.



우리 땅 우리 자연, 우리가 지킨다

글 한윤철(운영지원팀)

우리회사가 민·군 합동의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 보호 실현을 위해 1월 25~26일 천연기념물지킴이 두루미 보호활동에 동참해 육군 제6보병사단을 비롯한 한국두루미보호협회, 한국조류보호협회와 DMZ생태보존에 관한 '두루미 지킴이' 협약을 맺었다. 육군 제6보병사단은 비무장지대 내 두루미 서식지가 포함된 관할지역에서 두루미 보호활동에 긴밀히 협력해왔다. 우리회사는 육군 제6보병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위문금 3천만 원을 전달하며 두루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행복' 후원금

글 신영철(운영지원팀)

자료제공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우리나라에 이주해 다문화가정을 꾸린 여성 가운데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우리회사가 지난해 5월부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 뒤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회사가 전달한 후원금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국 곳곳의 쉼터에서 값지게 쓰였다는 소식입니다.

대구쉼터에서는 필리핀 출신의 미셀(가명) 씨와 그 자녀 3명, 캄보디아 출신의 미영(가명) 씨와 그 자녀 1명이 그룹홈 형태로 독립하는데 후원금을 활용했습니다. 그중 미셀 씨는 남편의 잦은 폭력에 시달리다 대구쉼터에 오게 됐습니다. 미셀의 남편은 아이들이 탄 차에 등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다 주유소 직원 신고로 입건됐습니다.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이 대구쉼터에서 보호 받으며 자립을 준비하던 중 우리회사가 전한 후원금으로 집 보증금과 세간 구입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쉼터에서는 베트남 출신의 황티푸영(가명) 씨와 자녀 1명이 자립하는 데 취사용품을 비롯한 가전제품을 갖추는 데에 후원금을 썼습니다. 이 밖에도 청주쉼터는 한여름에 에어컨을 장만해 가정폭력 피해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이 마음 편히 상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췄습니다.

제1호 주유소의 역사와 명성 지켜가겠습니다

서울 화곡동 하이웨이주유소



한 고 학 소장

단골 고객이 많은 비결은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운영해오며 고객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쌓은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지요. 과다한 홍보, 제삿값기식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신뢰할 만한 정품정량 정책과 편안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타 주유소보다 인지도가 높고, 또 사회공헌활동에 열심이라는 것을 알고 멀리서 오는 고객도 있습니다.

2014년 운영 계획은

인근에 주유소가 많아지고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날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타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문봉장학회 등 사회활동은 운영과는 별도로 지속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이웨이주유소는 1970년 4월에 문을 연 역사 깊은 주유소이다. 1976년 우리회사의 전신인 한·이석유(주)가 설립되고 인연을 맺은 이래 '제1호 주유소'로서 줄곧 우리 계열주유소로 함께해 왔다. 한고학 소장은 1976년 4월 직원에서부터 근무한 평생 직장이기도 하다.

“우리 주유소는 에쓰-오일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동안 타 계열에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설립자의 방침이기도 했지요.”

오랜 이력만큼이나 하이웨이주유소의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다. 고객에게 편안함과 믿음을 주는 지역 친화형 주유소로 뛰어난 운영능력을 발휘하며 언론에도 자주 소개됐다.

“단골 고객 비중이 8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영업시간이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인데 한창 때는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많았어요. 공항대로를 오가는 차량들이나 화곡동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푸근하고 편안한 주유소이죠.”

단골 고객은 자기가 선호하는 주유기가 있을 정도로 애착이 깊다. 젊을 때 단골이 나이 들어서 다시 찾아올 정도로, 익숙하게 오고 또 오는 삶의 장소인 셈이다.

▶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의 큰 뜻 이어나갈 것

고객들이 하이웨이주유소를 기억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문봉장학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이다. 1995년에 김보정 설립자(타계)가 10억 원의 자산을 출연해 출범한 문봉장학회는 어려운 사정으로 공부가 중단될 기로에 처해있는 학생들에게 매년 적게는 20여 명에서 40여 명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선친의 뜻은 김병학 대표에게 이어져 2007년에 30억 원을 출연하며 장학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재양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장학회가 중단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붓을 꺾지 않고 교육을 통해 성장하면서 나라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설립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소장은 우리회사에서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 햇살나눔봉사단, 소방·해경·시민영웅지킴이, 천연기념물지킴이 등 다른 기업에서는 엄두 내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일선의 직원들에게 큰 자랑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 주유소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1호 주유소이자 대표 주유소로서 명예를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이웨이주유소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6번 국도인 공항대로변에 위치해있는 주유소로서, 모범적인 운영으로 단골 고객이 많고 최근 2005년과 2008년 챔피언스 클럽에도 등재된 바 있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2(화곡동 1125)
02-2605-4000



‘퍼즐’ 같이 조화로운
가족이 되고 싶어요

대전지사 홍승덕 사우 가족

홍승덕 사우가 가족을 위해 사보 편집실 문을 두드렸다.
 “가족들 모두 기분 전환을 하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일에 치여 살다보니 가족의 소중함은 알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우리 사우들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고
 싶을 때 이벤트 신청을 해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부부는 자녀 걱정, 자녀는 아빠엄마 걱정

홍승덕 사우가 가족들과 함께한 곳은 예전에 가족을 데리고 한번 와본
 곳이다. 음식이 매우 다양하고 맛있어 이곳을 다시 찾은 가족들은 ‘대
 만족’이다.

자녀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홍 사우의 모습은 영락없는 만점 아
 빠이다. 중학생인 진화(16살)와 초등학교생인 석화(11살)가 겨울방학 동안
 계획이 없는지 묻자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스키장에서 꼭 뭉쳐보자”고
 사나이끼리 약속이라며 새끼손가락을 건다.

“저희 아이들 착하기로는 두 번째라면 서러울 듯합니다.”

홍 사우의 말에 아내는 “요즘 아이들 같지 않아 한편으론 걱정도 된다”
 고 말한다.

“진화는 아침에 엄마가 출근한 뒤 혼자 일어나 지각 않고 등교 잘하고,
 아침식사 뒤 반찬 그릇도 냉장고에 잘 넣어 두죠. 석화는 외조모와 시골
 에서 지내면서 새벽 6시 반에 일어나 학교에 잘도 갑니다. 저녁에는 외
 할아버지 휴대폰 문자를 읽어드리면서 예쁨도 받고요.”

오히려 진화와 석화는 그런 아빠와 엄마가 걱정스러운 모양이다.

“우리 아빠는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빠는 휴일에도 휴대전화 통화를 많이 하세요. 엄마는 그렇게
 까지는 아닌데, 이상해요.”

그 말에 홍 사우어 “공부 잘하라고도 안하고 화도 잘 내지 않는 편인 아
 빠인데, 말이 없는 편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라며 웃는다. 아내는 “어려서 그런지 아빠보다는 엄마인 저를 더 좋아
 한다”면서도 매주 아빠와 목욕탕을 갈 때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
 고 고백한다.

“딸이 없어서인지 삼부자가 부럽기도 해요. 대신 제가 직접 아이들 씻기
 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고 생각하려고요.”

“
 취향도 습관도
 비슷한 가족,
 서로에 대한 사랑도
 누구보다 깊다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홍 사우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



떨어져 있어도 통하는 '우리는 한 가족'

홍 사우 부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경우이다. 은행에 근무하는 아내와는 근무지역이 달라 한동안 근무지 중간 즈음에 집을 얻어 양쪽으로 각자 출퇴근을 했다. 그것이 벌써 19년째라는데, 최근에 아내가 천안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됐다. 지금 아내와 진화가 천안 집에서, 석화가 충남 보령 처갓집에서, 홍 사우는 대전 사택에서 살고 있지만 조만간 한 곳에 가족만의 보금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우리는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먹는 것만 봐도 그래요. 아내와 저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아이들도 햄버거나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올해 이들 가족은 계획이 많다. 겨울엔 스키장 가고, 여름방학 때는 제주도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막내 석화가 못가본 해외여행도 가볼 생각이다.

"아이들이 열대과일을 좋아하니 색다른 음식도 먹이고 다른 세상도 보여줄 겸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

늘 미안한 아내에게...

새벽에 나보다 멀리 출근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해 미안하오. 그래도 이제까지 잘해 왔으니 잘 하리라 믿어요. 큰 힘이 되지 못해 늘 미안하고 표현에 서투른 점도 이해해 주길... 당신은 나만 큼이나 일에 욕심에 많아 좀 걱정이라오. 늦게 집에 와서도 온라인 강좌 듣지 자격증 공부하지, 어찌 보면 당신에 비해 난 편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 같네. 추운 날씨에 늘 건강 챙기고, 조금만 더 참으시다. **고마워요, 사랑하오.**

마음지 과마운 남편에게...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살림에 신경쓰지 못하는데도 불평 없이 늘 이해해 주는 당신 고마워요. 한 주도 안 거르고 두 아들 뒤치다꺼리하느라 고생인 것 잘 알아요. 이제 천안으로 발령받았으니 요리도 해볼까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매일 운전하고 다니는 당신이 걱정이고 다리가 아픈데도 챙겨주지도 못해 더 미안해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아프지 말고 건강 꼭 챙기세요. **알았죠? 사랑해요.**



※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외식 이벤트에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 문의 sabo@s-oil.com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날 지원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딸 지원에게

지원아, 우리 지원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쁘고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구나. 결혼 후 조금 늦게 생긴 아기인지만 엄마아빠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너를 맞이했지. 엄마 뱃속이 좋은지 열 달을 꼬박 채우고도 9일이 지나 이 세상에 나왔단다. 아빠가 함께 한 가운데 엄마는 여섯 시간 넘게 진통을 하다가 네가 태어났을 때,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어서 아직도 어제처럼 생생하구나. 양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가 기뻐했지.

이제 50일이 조금 지났지만 밤에도 여덟 시간씩 잘 자고 아픈데 없이 잘 자라는 것 같아서 대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슬기롭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어. 지원이 이름은 지혜로움의 으뜸이 되라는 뜻으로 아빠가 며칠간 공부해서 직접 지은 이름이란다. 이 세상이 살아가기에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겠지만, 지원이는 이름처럼 슬기롭게 이겨내고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아빠엄마는 지원이가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넓은 세상을 보며 자라도록 도와줄 생각이야. 소중한 경험과 기억들을 통해서 지원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고 열심히 도와줄게.

아름답고 멋진 세상에 내려온 것을 환영하고, 작년 12월에 태어나 벌써 두 살이 된 우리 지원이가 올해도 아빠엄마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꾸나. 지원이 파이팅! 🌻

정월 正月 달이 차오를 때 축제가 시작된다

전북 완주 '만경강 달빛축제'

옛날 정월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계획하고 운세를 점치는 것으로 시작했다. 즉 정월에는 사람과 신(神),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화합하고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기원하며 점쳐보는 달이었던 것이다. 특히 농경 중심이던 우리 전통문화 측면에서 달은 풍요로운 생산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정월에 뜨는 대보름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한국·중국·일본에서는 설날만달이나 중요하게 여겼다.

음력 1월 15일인 이 날에는 음식과 풍물놀이도 다양하다. 오곡밥을 지어 먹고 아침 일찍 부럼이라고 하는 껍질이 단단한 과일을 깨물어서 마당에 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다. 또 귀밝이술을 마시고, 밤에는 뒷동산에 올라가 달맞이와 달집을 태우며 소원을 빌었다. 올해 정월 대보름은 양력으로 2월 14일로 지역마다 독특한 대보름 행사를 여는데, 전통의 색깔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전북 완주의 '만경강 달빛 축제'를 소개하기로 한다.



달빛축제 오실 때
아리랑 주유소
꼭 들려주세요!



전주지사
김 석 배 사우



다들이 공연, 달집 태우기 등 볼거리 풍성
'만경강 달빛축제'는 해마다 음력 1월 15일이 되는 주말에 완주군 고산면 창포마을에서 열린다. 이 날이 되면 마을 주민 전체가 축제에 참여하는데, 마을 풍물패와 주민 전체가 참가하는 '당산제'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마을의 평안과 복을 비는 자리에서 함께 기운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이다. 그 다음으로 다들이할머니 공연단의 공연마당을 볼 수 있는데, TV 오락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어 유명세를 치르기도 한 마을의 자랑거리이다. 평균 연령 76세, 다들이 경력 55년 이상의 할머니로 구성된 공연단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흥겨운 가락 속에 문득 가슴 찡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축제의 백미는 단연 전통놀이 체험이다. 쥐불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행

만경강 달빛축제 정보

일시 매년 정월 대보름이 있는 주말
(2014년 일시는 2월 초 홈페이지에서 공지)

주소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항리 370-4
내비게이션에서 '완주창포마을' 또는
'소항리 370-4'를 검색해서 찾아온다.
서울에서는 3시간, 대전과 광주에서는 1시간 30분,
대구에서는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문의 063-261-7373
www.chapovil.com

전북 완주 아리랑주유소



1995년 5월 문을 연 주유소로 전주에서 호남고속도로 익산IC에서 나와 왕복6차선 799번 국도 상에 위치하고 있다. 7~8개의 타사 주유소가 인접해 있고 가격경쟁이 치열한 경합지역이다. 2013년 대대적인 시설 개선과 셀프 주유소 전환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주유소이다. 축제장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된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712(장구리 90-3)
063-262-5451



사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어린 자녀와 함께 놀이도 하고, 옛 추억도 되살리는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다. 또 달집을 태우며 올해의 소망을 비는 '달집 태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행사이다. 나무를 통째로 베어 커다랗게 만든 달집을 태우는 이 놀이는 나쁜 기운을 태우고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인데, 지금은 이 행사를 하는 곳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서 이 자체가 하나의 매력적인 콘텐츠인 셈이다. 20m에 달하는 웅장하고 거대한 달집은 어지간한 캠프파이어보다 더 큰 볼거리를 안겨준다.
이번 정월 대보름에 '만경강 달빛축제'에 와서 정월 대보름의 의미도 새기고, 맛있는 먹거리도 즐기고, 가족 간의 화합도 다지는 일석삼조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창포마을의 이모저모
창포마을이 있는 전북 완주는 서쪽으로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는 호남의 대표적 쌀 생산지로, 옛날부터 음식문화가 발달한 고장으로 유명했다. 특히 창포마을은 이름에서처럼 전국 최대의 토종 창포 군락지가 있는 청정지역으로, 그 넓이가 4천1백 여 평에 달한다.
근래에 슬로우푸드 영향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음식문화인 삼국은 일종의 전통방식의 가열방법이 특색인데, 땅 속에 뜨거운 수증기를 불어넣어 음식을 장시간 익히는 개념이다. 달궈진 자갈을 깔고 그 위로 솔잎과 쑥을 넉넉하게 엮는다. 그리고 감자·호박·고구마·옥수수·밤 등을 고르게 놓는다. 그 위로 대나무를 촘촘하게 엮고 흙을 덮어 다진다. 마지막으로 흙에 구멍을 낸 후 물

을 흘려 넣으면 수증기에 의해 음식이 서서히 익어간다. 대략 1~2시간 정도 걸린다. 창포마을에서는 다른 지역의 삼국과 다르게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넣는데, 일종의 모듬삼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축제 기간 외에 상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으로는 산과 들에서 주민들이 직접 채취한 산나물을 비벼 먹는 비빔밥 체험을 추천한다. 화확조미료 없이 조리한 데다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은 고명이 준비되어 있어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크게 놀란다. 또 시간 여건을 살펴 창포비누 만들기 체험과 다듬이 공연 및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천년역사와 자연생태 찾아 자분자분 거니는 ‘숨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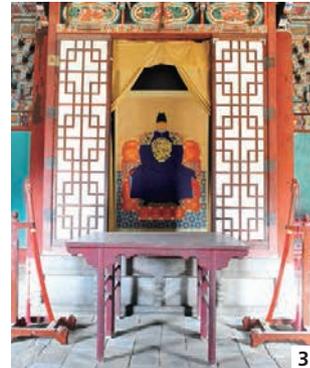
전주 한옥마을 숨길

전주(全州)는 신라 경덕왕(757년) 때 완산주를 개명한 이래 천년세월을 이어온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이다. 드넓은 평야와 굳센 산세, 바다까지 아우른 천혜의 지리 덕에 일찍부터 물산이 풍부했다.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마지막 도읍이고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행정적으로는 전라도와 멀리 제주도까지 관할한 유서 깊은 고을이다. 섬세한 멋과 맛을 자랑하며, 판소리 본고장이란 자긍심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고, “서울이 행정수도라면 전주는 한국전통문화의 수도”라고 밝힌 국제슬로시티연맹은 느낌을 영위하는 ‘국제슬로시티’로 지정했다.

전통생활양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곳에 둘레길이 열렸다. ‘노송천 가는 길’, ‘도란도란 시나브로 길’, ‘선비체험 길’, ‘한옥마을 둘레길’ 가운데 “걸으면서 숨 좀 크게 쉬자”는 뜻을 담고 달팽이가 안내하는 한옥마을 둘레길, ‘숨길’을 나서보자.



1. 전주천 상류 독길은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가는 길이다.
2. '호남제일성'인 전주성은 동[완동문(完東門)]·서[패서문(沛西門)]·남[풍남문(豊南門)]·북[공북문(供北門)]에 모두 문루가 있었으나 지금은 남문만 남아 있다. 사진은 풍남문 전경으로 성문 위에 세운 누각 기둥이 하나로 연결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3. 조선왕조를 연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기 위해 지은 건물인 경기전이다. 전주·경주·평양에 어진 봉안처를 두고 어용전이라 불렀다가 세종24년(1442년)에 전주는 경기전, 경주는 집경전, 평양은 영승전이라 각각 칭했다. 사진은 이성계의 전신 어진을 모신 본전 모습이다.



코스

풍남문-전동성당-경기전-최명희문학관-공예품전시관-당산나무-오목대-양사재-전주향교-한벽당-전주천 수변 생태공원-자연생태박물관-치명자산 성지-88올림픽 기념숲-색장동마을회관-안적교-은석교-월암마을의 정여립 생가터(약 14km) ▶ 5시간 소요



풍남문(豊南門)은 전주성의 남쪽 문이다. 고려 때 쌓았고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영조(1768) 때 전라감사 홍락인이 다시 쌓으며 풍남문이라 했다. '풍남'이란 '풍배(豊沛)'의 남쪽 즉, 한고조 유방이 태어난 곳이다. 전주 또한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의 본관이므로 풍남문은 이를 본 딴 듯하다. 1907년 조선통감부의 폐성령에 따라 3대문이 철거되어 현재 풍남문만 남아 있다.

풍남문을 돌아 한길을 건너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의 하나로 손꼽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웅장한 종탑을 직접 볼 수 있는 전동성당이 있다. 호남지역에서 서양식 근대 건축물로는 가장 오래되어 사적 제288호로 지정됐다. 애초 이태조 유허지인 오목대 자리에 세우려 했으나 당시 전라감사, 후에 일제 잡상이 된 이완용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과 그의 외종형 권상연, 유항검 등 호남의 많은 천주교인이 참수당한 이곳에 1908년 프와빌 신부가 설계하고 1914년 완성했다. 구름 먹은 태양 아래 우뚝 솟은 붉은 종탑이 입체감과 상승감을 보여준다. 문득 둥근 천장, 스테인드글라스의 수채화 같은 색이 스며드는 공간에서 박신양과 전도연이 쓸쓸하고도 슬픈 결혼식을 올렸던 영화 '약속'을 떠올린다. '한국 최초 순교터'라는 기념비를 뒤에 두고, 도심 속 울창한 숲으로 각광받는 '경사스런 터' 경기전(사적 제339호)에 닿았다. 정문 앞은 사자를 닮은 석상 두 마리가 떠받치고 '지차개하마 잡인무득입(至此皆下馬 雜人毋得入)'라고 쓰인 하마비(1614년)가 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모두 말에서 내리고 잡인들은 출입을 금한다'는 뜻이다. 경기전은 일제강점기 때 많은 건물들이 철거됐다. 현재 예종의 태실과 비석,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전주사고, 전주이씨 시조 이한 부부의 위패를 모신 조경묘가 있다. 본전에는 태조 이성계의 전신 어진(진품은 전주박물관)-태종 때 여섯 곳에 모셨던 어진 중 유일하게 남은 초상화이다. 옛 어진(1410년)은 빛이 바래고 남아 소하고 1872년 모사한 것이다. 세종·영조·정조·철종·고종·순종의 초상화가 전시된 어진박물관을 둘러본 뒤 동문을 통해 한옥 마을로 들어선다.

전주의 도시미학을 '꽃심'으로 이야기했다는 대하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의 삶과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최명희 문학관'을 지나, 언제나 '새로움과 만남'이란 진보적 의미를 담고 무릇 작가들과 함께 예술혼을 공유하는 쉼터 교동아트센터를 만난다. 전주는 한지가 유명하다. 까닭은 판소리 때문이다. 판소리가 대중화되자 사설의 인 쇄가 필요했고, 목판본이 완성되면서 전통 한지 소비와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오목대로 가는 언덕에는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며 500여 년을 꽃피듯하게 지켜온 당산나무가 있다. 매년 음력 정월 보름 무병과 평온무사를 기원하는 당산제가 열리는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덕유산과 웅장산 줄기가 만덕산으로 이어지고, 승암산에서 뻗어 내린 발산 기슭에 자리한 아담

걷고 싶은 길

- 4. 한벽당은 조선개국공신으로 집현전 직제학을 지낸 월당 최담 선생이 별장으로 지은 건물이다.
- 5. 정여립이 즐겨 쉬었다는 자리에 모정 한 채를 지어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 6. 전주천은 맑은 수채화처럼 포근한 삶의 배경과 동심의 터전이다. 세상물정 모르는 개구쟁이들에게는 고기 잡고 먹감는 놀이터로, 시집살이 고달픈 아낙네는 온갖 푸념 털어 놓고 빨래방망이질로 설움을 달래던 자리로, 어떤 이는 생업의 터전으로 우리네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채 도도히 흐르는 하천이다.



한 대(墩臺)가 오목대(梧木臺). 고종은 광무 4년(1900년) '태조가 잠시 머물던 곳'이란 뜻의 '태조고황제주필유지(太祖高皇帝駐蹕遺址)' 비석을 세웠고, 이성계의 4대 할아버지[穆祖:이안사]가 태어나서 살다가 함경도로 이주했다는 이목대(梨木臺)에도 '목조대왕구거유지(穆祖大王舊居遺址)'라고 쓴 친필 비석을 세웠다. 고려 우왕 6년(1380년) 이성계는 운봉 황산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개선하던 중 잠시 전주부성에 들러 종친을 모아 잔치를 벌이고 흥에 겨워 '대풍가(大風歌)'를 불렀다.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고향 패(沛)로 개선해 연회를 벌이면서 부른 즉흥시였는데, 이성계가 다른 생각을 품은 것은 바로 이때부터가 아니었는지.

종사관으로 이성계를 따르던 정몽주는 이를 보고 남고산 만경대에 올라 개경을 바라보며 시 한수를 읊고, 정치적으로 결별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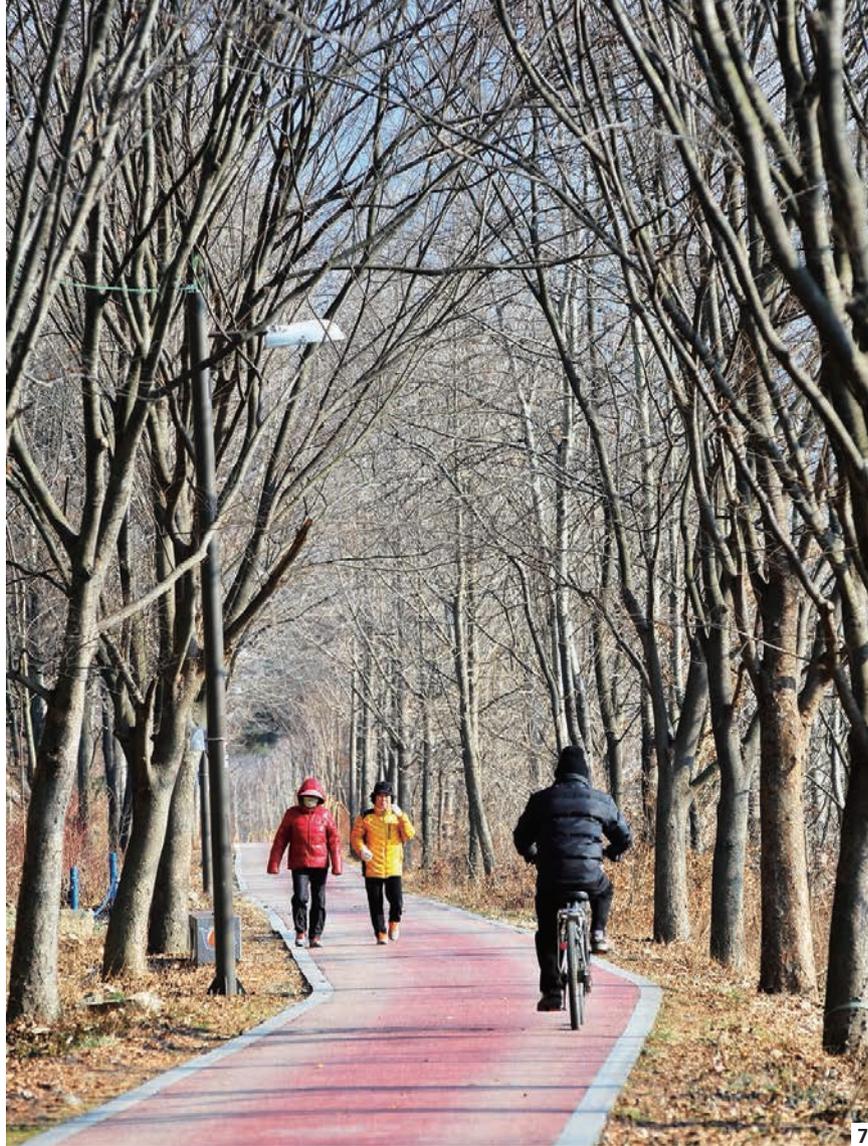
천길 높은 산에 비킨 돌길을 홀로 다다르니
가슴에는 시름이여 청산에 깊이 잠겨
맹세하던 부여국은 누른 잎 휘휘 날려
백제성에 쌓였네
9월 바람은 높아 나그네 시름 깊고
백년의 호탕한 기상, 서생은 그르쳤네
하늘 해는 기울고 뜬구름 마주치는데
하염없이 고개 돌려 옥경(玉京, 개경)만
바라보네

오목대를 내려와 마을의 공동우물 '쌍시암'이 있던 쌍샘골목길을 지나면 전주향교(사적 제379호)이다. 세종 23년(1441년) 경기전 근처에 세운 것을 선조 36년(1603년) 전라감사 장만이 현 위치로 옮겼다. 영화 YMCA아구단과 TV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촬영지로 유명세를 탄 때문일까. 학생들 한 무리가 돌계단에 앉아 사진을 찍느라 야단스럽다.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경쾌한 대성전과 명륜당 앞뜰에 벌레를 타지 않는

400년 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다. 학생들이 배움을 익히고 바르게 자라란 의미의 버팀목이다. 한옥마을 골목은 하늘을 안고 땅을 품고 있어서 막힘이 없다. 열린 길을 따라 느릿느릿한 걸음걸이가 갑자기 시원해진다. 독길에서 마주한 바람 때문이다. 민물고기로 끓여내는 오모거리탕 식당기를 지나면 절벽을 깎아 아담한 터를 닦아 세운 누각, 한벽당(寒碧堂)이 멋지게 앉아 있다. 조선 건국공신 최담이 짓고 그의 호를 따서 '월당루'라 했으나, '바위에 부딪혀 흰 옥처럼 부서지는 물결의 포말이 시리도록 차갑다'는 뜻의 한벽당으로 바꾸었다. 남원 광한루·무주 한풍루와 함께 호남삼한으로 불리는 한벽당에 올라서니 누각 아래로 물살이 휘어지며 급하게 흐르는 모습이 절경이다. 가히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길만한 명당이다. 한벽굴이다. 일제 강점기에 한벽당 정기를 끊기 위해 만든 철길이었었는데, 후에 전라선으로 쓰이다 지금은 레일을 걷어내고 산책로와 자전거 길로 다시 태어났다. 생태하천 전주천을 따라 자분자분 걷는 길, 천년역사와 자연생태를 찾아 거니

큰바람이 일고 구름은 높이 날아가네
(大風起兮雲飛揚)
위풍을 해내에 떨치며 고향에 돌아왔네
(威加海內兮歸故鄉)
내 어찌 용맹한 인재를 얻어 사방을 지키지
않을소냐
(安得猛士兮守四方)





7. 한벽굴을 뒤로하고 걷는 길은 '아름다운 순례길'과 함께 한다. 원래 철길이던 것을 레일을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포장했기에 자전거가 더 어울리는 예쁜 길이다.
8. 5백여 년을 지켜온 한옥마을의 당산나무(사진 오른쪽)가 우뚝 서있다.
9. 운봉에서 황산대천을 이루고 개경 개선길에 잠시 들러 잔치를 베푼 자리에서 이성계는 한고조 유방의 대풍가를 호탕하게 불렀다는 오목대. 동행했던 정몽주와 정치적으로 갈라서게 된 역사적 장소이다. 사진은 고종친필로 쓴 비석을 모신 비각에서 사진을 찍는 탐방객들의 모습이다.



는 '숨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며, 정여립 생가 터까지 '바람쐬는 길'과 '아름다운 순례길(전주 구간)'이 함께 가는 구간이다. 이야기가 흐르고 흘러 역사가 된 전주천은 임실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 전주시를 관통하며 남쪽으로 흐른다 해서 남천으로도 부른다. 생태계 복원의 성공적인 대표 사례로, 현재 수달·쉬리·갈겨니·원앙 등 30여 종의 지표생물과 1백여 종의 곤충이 서식한다. 두서너 명이 어깨를 맞대고 걸어가는 작고 예쁜 길은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걷는 아담한 길이다. 예전 통학열차의 추억과 청운의 꿈을 안고 도시로 떠났던 청춘의 기억까지 새삼 되살아나는 건 마치 바람결에 기적소리가 흘러오듯이 구름과 동행했다는 진한 감동 때문은 아닐까. 승암산(중바위산) 비탈에 전주교 순교자들이 묻힌 뒤 치명자산 혹은 루갈다산으로 불리며 순례지가 됐다. 정조 8년(1784년) 호남에 처음 전주

교 전파와 선교사를 영입하다 국사범으로 처형된 유항검 부부와 큰 아들 유중철 부부, 둘째 아들 유문철, 제수 이육희, 조카 유중성 등 일곱 분을 하나의 유택에 모셨다. 그 아래 왼쪽 가파른 산길은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최고의 성지순례 십자가의 길이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처럼 야외음악회와 소풍지로 사랑받는 몽마르트 광장, 신도들이 조성한 기도꽃길은 명상하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어 천주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즐겨 찾는다. 전주천 둔치에 조성한 올림픽 숲을 지나면서 숨길은 원점으로 회귀하고, 길손은 가던 길을 내쳐 쫓는다. 조선시대 때 사또의 딸 연화낭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호환으로 잃자 슬픔에 못 이겨 몸을 던져 자살했다는 각시바위를 거쳐서 색장동마을 회관을 지나고 은석골에서 잠시 발심을 한 뒤 다시 득방길을 한 시간여 걸었을까. 마침내 월암마

을에서 '정여립 선생 생가터' 팻말과 마주한다. 정여립(1546~1589)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천하는 일정한 주인이 따로 없다'는 천하공물설을 주장한 개혁기이자 최초의 공화주의자로서 대동계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모반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한 선진 사상가다. 기록에는 집터를 송두리째 파내고 물을 채워 연못으로 만들었다는데... 애써 찾아온 생가 터에는 정여립이 즐겨 쉬었다는 안내문과 함께 모정 한 채를 지어 심터로 쓰고 있을 뿐 정작 생가 터는 어딘지 알 수가 없다. 대신 '죽도 가는 길'이란 뜻말이 산속을 향해 있다.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아 벼슬을 그만두고 진안군 죽도에 들어가 서당을 짓고 학문과 무예를 가르치며 오가던 길이 잘 보존되어 지금은 '아름다운 순례길'로 이용되고 있다. 맹춘지절 새소리와 물소리, 바람소리를 벗하며 걷는 동안 자연은 물론이고 정여립의 숨결마저 듣는 듯했다. 🌻

강한 내면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윤활운영팀 윤희식 사우의 롤모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반기문은 모든 안전과 자료를 숙지하는 철두철미한 준비성, 부하 직원에게 전권을 주되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솔선수범으로 역사상 가장 능동적인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 ”

‘반기문’

글 | 윤희식(윤희운영팀)

“클린턴이 10시 백악관 회의에 제때 나타난 비율은 30%였지만, 오바마는 90%였다고 한다. 클린턴이 다음날 자기가 주재할 회의 주제에 관한 문헌을 읽었을 가능성은 아주 낮고, 오바마가 미리 자료를 읽었을 확률은 70% 정도였다. 나의 경우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100% 어김없이 모든 자료를 읽는다. 시간을 지키는 비율은 97%이다. 나는 항상 규율이 잘 잡혀있다.”

‘회사 생활의 사춘기’라는 4년차가 된 저에게 반기문 총장님은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스스로 오지 발령을 지원하고 낮은 직위의 인사 발령도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반 총장님의 모습을 보며, 조금만 힘들어도 세상을 뺏기고 회사를 뺏기고 가족을 뺏었던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항상 선한 미소와 남들에 대한 배려로 주위를 편안하게 하는 반 총장님은 진정으로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에 반해 저는 동료와 가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반 총장님처럼 자기 자신에 엄격하고 편안한 성품을 가진 동료로서,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겸손과 솔선수범 리더십으로 세계사 흐름의 중심이 되다

1944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버지가 창고사업 부도로 정미소 인부로 일하는 등 곤궁해진 가정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영어를 좋아해 영어 신동으로 불린 그는 충주고 3학년 때 적십자사 비스타(VSTA) 프로그램의 한국대표로 뽑혀 미국을 방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이 만남을 계기로 외교관을 장래희망으로 삼은 그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해 한발 한발 외교무대에 발자국을 디디게 된다.

외교관들의 꿈이었던 미국 워싱턴 발령을 거부하고 인도·인도네시아 등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나라로 간 이유는 ‘위험지에 대한 특별수당을 모아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리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세계 각지에서 역량을 쌓은 그는 90년대 북한 핵위기와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망명 등 굵직한 현안에서 일익을 맡게 되고, 2004년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쳐 2006년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임기 초 반기문 총장은 서구 언론의 집요하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고생했다. <포린 폴리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인”이라고 혹평했고, <뉴스위크>는 표지에 그의 얼굴을 싣고 “이 남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사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모인 유엔의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영광보다는 한계가 더 많은 것이었다. 나라의 권력을 가진 국가 지도자와 달리 유엔 사무총장은 결정권 없이 단지 도덕적 힘과 권위, 회의소집권만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반기문 총장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라는 꿈을 위해 하루하루 로드맵을 완성시켜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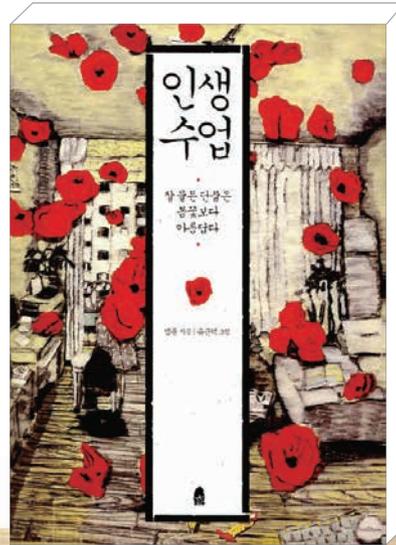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때는 유엔의 한계를 지적하는 언론과 강력한 카리스마 부족을 문제 삼는 사람들에 부딪혀 무척 고전하리라 예상했지만, 아이티·미얀마·파키스탄의 자연재해 참사, 칠레 광산 붕괴 등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여론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모든 안건과 자료를 숙지하는 철두철미한 준비성, 부하 직원에게 전권을 주되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솔선수범으로 보란 듯이 연임을 확정했다. 그는 스스로 “나는 걸으로는 부드러워 보일 수 있지만, 강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때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동시 휴전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분주할 무렵, 그는 ‘동시 휴전’이 아닌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휴전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후 팔레스타인이 휴전 선언을 하기까지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한 업적 속에서 반기문 총장은 세계 각지의 군사문제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이끄는 역사상 가장 능동적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기문과의 대화>라는 책을 쓴 톰 플레이트(<Time>, <LA 타임스> 논설위원·편집장)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 이렇게 썼다. “우리에게는 사무총장이 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유엔 꼭대기에서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일꾼이 있다. 왠지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합니다

법륜 <인생수업>



얼마 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를 벌인 코스타리카의 행복지수가 새삼 화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겐 생소한 나라이지만 코스타리카는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2012년 1위로 선정된 바 있는 행복국가다. 선진국도 아닌 중미의 작은 나라가 행복지수 1위에 뽑혔던 이유는 무엇일까? 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 가깝다. 경제의 풍요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행복이 부와 권력, 명예와 같은 세상의 통속적 기준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과 가까운 곳에 산다. 그리고 그들은 만족할 줄 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현재의 처지를 가까이 받아들이고, 즐기며 사는 것이다. <인생수업>을 펴낸 법륜스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중심을 찾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스님은 말한다. 세상의 통속적인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행복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물, 출세, 명예, 건강 등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눈이 열리고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길이 보인다고 법륜스님은 말한다. 그래서 스님은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오늘의 삶이 늘 만족스러우면 그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다.

또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일이 일어나 버렸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다.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 삶을 긍정하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면, 인생의 후반전도 마냥 즐거울 수밖에 없다. 봄꽃보다 아름다운 잘 물든 단풍을 가을에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 이해가 넓어지는 중년 이후에도 인생의 황금기를 만날 수 있다.

법륜스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성찰을 통해 미래를 긍정적으로 가꾸어가길 희망한다. 스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이 편하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매 순간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합니다.

자꾸 행복하겠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을 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네.” 

〈인생수업〉 이렇게 읽었습니다



최우혁(RHDS공정과)

이 책은 인생 전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의 내가 얼마나 행복하기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릴 적 내가 그려오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까지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우리 사우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해 보기 바란다.



노성현(분해2과)

'즉문즉설'로 유명한 법륜스님은 이 책에서도 스님 특유의 멋진 말씀을 많이 들려준다.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읽고 있노라면 나의 인생관과 행복론에 대한 생각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절로 고개가 고덕여진다. 두고두고 곁에 두면서 힘을 때마다 읽으면 위안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스님의 말씀 중에 "행복, 따로 준비하지 마라. 지금 당장 행복하라"라는 구절이 기억에 남는데,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지켜야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새처럼 자유롭게 사자처럼 거침없이
장휘옥 / 이랑

도쿄대학교 대학원에서 화엄 사상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던 저자 장휘옥이 10년 전 남해안의 외딴 섬 오곡도에 들어가 간화선 수행에 매진하여 대지유의 삶을 살고 있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대지유를 얻기 위한 한 인간의 삶의 대장정을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다.



오체투지
한경혜 / 작가의집

화가 한경혜는 돌이 갓 지나 뇌성마비로 죽음을 선고 받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철스님을 찾아간다. 매일 천 배를 하라는 성철스님의 말에 7세 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천 배의 약속을 지킨 에세이집으로, 화가의 꿈을 키워가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삶에 대한 도전과 절을 통해 기적을 일궈낸 이야기를 담았다.

본 도서는 지난 1월 1일~31일 공장 자료실에서 가장 높은 대여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탄생한 이래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의 보급장인 미국보다 두 배나 높은 79.5%(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3천600만 명)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언론보도가 세간에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일명 '맞대기 도박'을 했다는데,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불법 도박 혐의자들이 유독 30, 40대 성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유 없이 스마트폰 든다면

혹시 나도?

스마트폰 중독



글 쓰는 순서

- 알코올 중독
- 스마트폰 중독
- 담배 중독
- 쇼핑 중독
- 카페인 중독
- 게임 중독
- 탄수화물 중독
- 일 중독
- 인스턴트 중독
- 취미 중독
- 설탕 중독
- 관계 중독

01. 스마트폰 중독은 수명 단축의 직접적인 원인

지하철이나 버스 안 또는 길거리를 나가보면 30~40대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보통 상하좌우로 장애물을 피하거나 총을 쏘는 형태의 아케이드 게임이나 퍼즐이 대부분이다. 이런 유형의 게임은 꾸준히 흥미를 유발하는 고난이도 게임이라기 보다는 잠시 생각을 접고 몰입할 수 있는 단순한 게임이다.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등 복잡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수단으로 접했다가 중독 되는 경우가 많다.

성인들은 대부분 업무와 작업 때문에 끊임없이 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항상 긴장하고 있다. 만일 당신 잠시 쉬는 시간이 생겼다고 자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면 뇌가 쉬어야 할 시간에 더욱 혹사당해 계속 피로한 채로 있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마치 예언이라도 한 듯이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학기술이 인간 사이의 소통을 뛰어넘을 그날이 두렵다. 세상은 천치들의 세대가 될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빠르게 진행된다. 성인은 아동·청소년과 다르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 실시간 채팅이나 SNS로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스마트한 생활임을 잊지 말고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지 않는 간단한 예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02.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하게 예방하는 7가지 방법

1. 눈앞의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게 가려둔다.
2. 운전 중 스마트폰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3. 정기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점검한다.
4. 스마트폰을 무심결에 사용하기 전에 무엇을 하려 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고 사용한다.
5. 어플은 꼭 필요한 것만 내려받는다.
6. 채팅이나 메신저로 온 메시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7.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 아닐까 의심된다면 전문상담을 받는다. 



평소에 다음의 네 가지 다짐을 실천해보기를 권한다. 좋은 습관이 건강한 스마트폰 생활을 만들 수 있다.

- 1 **첫째, 과로하지 말자.**
너무 많은 일은 자꾸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해방감을 갈구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2 **둘째, 습관을 고치자.**
쉴 때마다 스마트폰을 잡게 된다면 다른 할 일을 만들자. 심호흡하거나 5분 명상 같이 뇌가 쉴 수 있는 좋은 생활습관을 만들자.
- 3 **셋째, 나만의 시간을 가지자.**
잠시 스마트폰을 끄고 규칙적으로 뇌가 쉴 수 있도록 하자. 가벼운 운동도 좋고 산책도 좋다.
- 4 **넷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자.**
수시로 정신건강을 체크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독자퀴즈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지난호 퀴즈 당첨자

주유상품권

구종덕 윤활유1과
박은정 자재관리과
박종욱 검사2과
정주영 안전과

USB저장장치

김술하 신규사업팀
이혁진 RUC기술팀
김지윤 예방정비2과
이광호 품질관리1과



손 모아 만드는 사보 꿈 모아 그리는 내일

사보 편집실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은 물론 팀/과, 부/부문 단위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뜻 있는 사료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 개인과 가족, 팀/과 구성원 등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사보 편집실의 문을 적극 두드려 주십시오.
사보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sabo@s-oil.com



〈표지〉 Communication

올해 변경된 표지가 예쁘네요. 더 많은 정보 소개 해 주세요. (박세령 예방정비2과)



〈주요소식〉 시무식

시무식을 개최해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정신유 고객,대구시 북구 중앙로)



〈단신〉 보너스카드 포인트 기부

회사와 고객이 하나 되어 보너스카드 포인트를 기부한 누적금액이 2억3천600만 원이나 된다니 놀랍습니다. (박정식 고객,충북 제천시 청풍호로)



〈최강 팀〉 업무팀

업무팀을 소개한 기사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진수 자재관리과)
다른 부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윤홍식 유회운영팀)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영은 이춘배 업무팀리더 자녀)



〈속삭속삭 소식통〉 열정 넘치는 업무현장

에스-오일의 뜨거운 에너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고 고객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허선숙 고객,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햇살나눔〉 철원DMZ 두루미 보호활동

멸종위기에 처한 두루미를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잘 보호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겠습니다. (신호근 동력4과)



〈가족 이야기〉

자녀와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지닌 가장의 용기 어린 고백이 가슴 찡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조석 고객,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걷고 싶은 길〉 충주 종명이길

충주에 조상의 묘가 있어 1년에 한번은 가보는데 주변 산천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정만식 수소3과)
충주 여행지를 생생하게 잘 소개해주어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류현수 동력4과)
한겨울 오솔길을 걸으며 낭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영섭 유회유1과)



〈마음 읽기〉 친구와 원수의 두 얼굴, 술 애주가

술 애주가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만한 정보였습니다. (김기환 구매팀리더)



9 Corporate Initiatives

9가지 전사전략과제로
미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1. *strategy*
2. *development*
3. *innovation*
4. *digitalization*
5. *socialization*

Strategic HR and
mgmt. infra **upgrade**
for performance drive